



3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공동 건의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음 4월 7일) 제327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전북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포부

‘새만금,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탈바꿈’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하고,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25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정립하고 실천에 나섰다.

이차전지 산업은 2022년 11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3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전북도는 국내외 시장과 기술의 전망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확보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비전과 전략을 구상했다.

이차전지 세계 시장 규모는 최근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2020년 461억 달러에서 2030년 3,517억 달러로 10년간 8배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기차용 이차전지 수요는 2021년 244GWh에서 2030년 3,254GWh로 약 13배의 수요가 예측되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전북도는 2034년까지 이차전지 관련

초격차 기술 확보 등 ‘두 마리 토끼’ 잡기 나서
2034년까지 관련기업 유치 100개 등 목표로
가치사슬 고도화 등 4대 전략 14대 과제 제시

련 기업 유치 100개, 고용 창출 1만 명, 누적 매출 100조원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14대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차전지 가치사슬(value chain)’을 고도화하기 위해 △4대 핵심소재 관련 기업 조기 집적화 △전후방 산업 연계 강화, △기업수요 맞춤형 기반 구축,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전북은 2023년 기준 39개사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2034년까지 100개로 집적화하고, 이 기업들이 전북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투자촉진보조 지원, 산업단지 기반 개선 지원 등 새만금개발청 및 군산시의 협력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초격차 기술 확보 연구 개발 혁신허브’를 구축하고자 △기

업수요 반영 대형 공동연구과제 추진,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집적화,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연구개발 혁신 허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연구개발 혁신 허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전기안전연구원 등 국내 우수 연구기관 다수가 참여해 신뢰성 평가센터, 차세대 전지 솔루션센터, 서울대학교 글로벌 R&D센터 분원 등을 유치하며,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 설립을 통해 초격차 연구기반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세계적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다양한 분야의 초격차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기업수요에 선제적인 대응과 우수 인력의 도내 정착 유도를 목표로 5년간 4,000명의 인력양성 및 채용연

계를 추진하며,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이차전지 인력양성지원센터를 종합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도내 6개 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한 인력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장인력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폴리텍대학, 마이스터고(5개교) 등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정책연계 지원체계 구축, △이차전지 산·학·연·관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운영, △특별자치도 특례 도입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 전북 특화단지 입주인 네트워크 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당장 7월부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이미 존재하는 새만금특별법을 통해 시험분석·인증지원을 포함한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등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한 후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특화단지 지원단이라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위 과제들을 집중·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수립 전력

도, ‘전북 RISE 계획안 컨설팅’ 실시… 사회혁신 담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논의

전북도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대전환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계획 수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25일, 전북연구원에서 나혜수 교육소통협력국장, 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과장 및 컨설팅 위원, 도내 대학 기획처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리즈(RISE) 계획(안)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설팅은 리즈 시범지역 7개 지역 중 가장 먼저 열렸으며, 그만큼

전북도의 리즈 계획 수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학령 인구 감소 및 타지역 인구 유출 등으로 직면한 인구소멸 및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이 지역발전의 허브가 돼 지역을 살리고, 지역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해 대학을 키우는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리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사회혁신을 담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이민정책(외국인 유학생 연계), △대학교 3~4학년도를 타겟으로 통합지원 패키지(취업, 금융, 정주여건 지원), △6대 핵심산업별 미스매치율 조사를 통한 인력양성계획 수립,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 방안이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됐다.

전북도는 이날 컨설팅 결과에 따른 내용을 보완한 후 6월중에 도내 20개 대학 기획처장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가질 계획이며, 시군과도 리즈

연계 지역대학 지원사업 발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지표 및 재정투자 계획을 보완하는 등 7월까지 리즈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나혜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컨설팅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대학재정지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과 대학의 공동 발전을 위해 도내 대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9일 석기탄신일 대체휴일로
신문은 30일 발행합니다.



전주매일 캠페인